

재외동포의



2013 6월호

특집 : 4~7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자”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16년간 630여 명 배출, “한국의 폴브라이트로 키운다”



세계 첫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



선정된 유일한 예이기도 하다.

이 책은 고려 말에 국사를 지냈던 백운이라는 스님이 선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이다. 원래 상·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또한, 세계기록문화유산 가운데 해당 국가에 있지 않는데도

두 권이었는데 현재는 하권만 남아 있고 그것도 첫 장은 없어진 상태다. '직지'는 1377년에 인쇄되었으니, 1455년에 인쇄된 서양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서 있다.

우리가 항상 문화를 수입하기만 하던 중국을 제치고 금속활자를 먼저 발명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것은 고려가 당시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뜻한다. 금속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 책은 아주 희귀한 물건이었다. 원본은 구한말 초대 주한 프랑스 공사가 구매해 가서 현재 프랑스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2	한국의 얼	세계 첫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
3	목차	
4	특집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자”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16년간 630여 명 배출, “한국의 풀브라이트로 키운다”
8	화제	차세대 한상네트워크 이끄는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성황 인도네시아에서 YBLN 상반기 세미나·네트워킹
10	인터뷰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신임 이사장 “재외동포 맞춤형 정책 실천할 것”
11	포커스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 ‘차세대 육성’ 집중
12	기획	청년동포 복수국적 완화, F-4 체류자격 확대된다 고용과 성장 위해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14	한민족공감	58회 현충일 추념식 애국선열의 뜻 되새겨 “선열의 희생과 헌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외
16	지구촌 통신원	미국 한인이민 사상 ‘첫 여성대표’ 탄생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 “주류사회 진출 적극 지원”
17	글로벌코리아	모국에 5천만 달러 투자하는 홍콩 韓商 신재천 빅오션리소스 회장 “20억 달러 가치 달성하겠다”
18	OKF 뉴스	‘2013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사전 신청 접수 외
19	현장의 목소리	분단 현실 피부로 느낀 재외동포 모국수학생들
20	통신원 칼럼	이민사의 산증인... 전 고려일보 한글판 편집장 독립투사 정상진 선생의 뜻깊은 일생 - 김상욱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상무위원, 한인일보 주필 -
22	우리말 배워봅시다	
23	동포문학	하늘을 나는 나무 김성만(중국) 2012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가작
24	나의 살던 고향	다채로운 비경의 200리 해안 삼척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표지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우수한 재외동포 학생들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총 630여 명의 장학생이 혜택을 보았다. 졸업생들은 교수, 연구원,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모국과 거주국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자”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16년간 630여 명 배출, “한국의 풀브라이트로 키운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우수한 재외동포 학생들이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총 630여 명의 장학생이 혜택을 보았다. 졸업생들은 교수, 연구원,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모국과 거주국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2



3

- 1 재외동포재단은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12층에 있는 포에버리더스클럽에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2 2013년도 장학증서를 받는 장학생은 총 30개국 68명(학사과정 27개국 37명, 석·박사과정 3개국 31명)이다.
- 3 재외동포재단은 모국 초청 장학생을 상대로 매년 2차례에 걸쳐서 '역사문화체험'을 실시해 모국 배우기를 돕고 있다.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36개국 총 193명이 장학생으로 재단의 장학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 장학생은 중국 출신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CIS 지역이고 그 밖에 미국, 일본, 유럽 및 아시아와 중남미 등 고루 분포되어 있다.

현재 학사 과정은 142명, 석사 과정 51명, 석·박사 통합과정 1명, 박사 과정 7명이다.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만 25세 미만이어야 하며 초, 중, 고등학교를 거주국에서 이수, 거주국의 국적,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장학증서를 받는 장학생들을 대표해 김해빈 학생은 답사를 통해 “조선 등 산업 분야에서 앞서 있는 모국의 학문을 배우고 한국을 더욱 알고 싶어 오게 됐다”며 “꿈은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워하던 때 이런 기회를 준 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유학생생활을 하려면 성적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도전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재단은 초청 장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유학생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졸업 때까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등 뒷받침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지지하지 말고 동포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모국에서 공부 중인 박시우(볼리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학사과정) 학생은 “학과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과 수업 이외 장학생들 간의 인맥을 쌓는 것도 훌륭한 자산이며 이는 우리가 졸업을 하고 거주국으로 돌아가서도 중요한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학생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해 활약하는 조엘레나 씨는 “학과 수업을 따라만 갈 것이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빠른 학과 과정에 적응해 자신만이 가진 생각과 지식을 활용해서 한국이라는 사회에 잘 녹아드는 것도 장학생으로서 가장 노력해야 하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재외동포재단은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센터 12층에 있는 포에버리더스클럽에서 재외동포재단 초청 장학생 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는 인사말에서 “재단 장학생 모두가 재외동포의 미래를 대표하는 인재이며 오늘 이 자리가 큰 도전을 위해 새롭게 꿈을 키우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학업 이수 후 각자의 거주국으로 돌아가 거주국 내에서 모범이 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날 장학증서를 받는 장학생은 서울대 산업·조선공학부 석사과정 김해빈(23세, 남, 중국) 학생 등 총 30개국 68명(학사 과정 27개국 37명, 석·박사 과정 3개국 31명)이다.

학생들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에 감사해 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 앞으로 모국에도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될 것을 다짐했다.

1997년 부터 재외동포 우수인재 발굴

재외동포재단이 1997년부터 시행하는 장학 사업은 재외동포 차세대 우수 인재를 발굴, 모국 교육기관 수학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적자산 육성

석·박사 과정 포함 등록금·생활비 지원

재외동포재단은 교육사업의 하나로 국내 대학 학사 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우수 동포 학생을 비롯한 석·박사 과정까지 선발하여 수학기간 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장학 사업은 중국, CIS 지역 등 낙후된 지역 우수 동포 학생들의 고등교육 지원을 통해 동포사회 역량을 키우고 고급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재단 초청 장학생으로 고려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대학에 교편을 잡은 부경대 예동근 교수는 초청 장학생 후보들에게 "한국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 교수 채용이 느는 추

세"라면서 "동포 유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 교수는 "재외동포재단의 초청 장학 사업도 앞으로 20년, 30년의 세월이 쌓이면 미국의 '폴브라이트 장학금'처럼 국제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장학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예 교수는 특히, 석·박사 과정을 다니는 후배들에게 "대학에만 취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시야를 넓혀 취업 자리를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국어교육과 석사를 수료하고 삼부토건에 입사한 카자흐스탄의 차바실리 씨는 "삼부토건의 카자흐스탄 진출 선봉에 설 수 있어서 무척 자랑스럽다"며 "고려인 장학생들은 거주국의 문화와

장학생 인터뷰

이번 참가자들은 현재 학사 및 석·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거나 내년에 입학예정인 학문의 심화라는 목표와 선조의 고향을 직접 접해보려는 뿌리에 대한 갈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소수만을 선발하는 장학생에 선발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살려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김주현 (20, 태국, 연세대 문화인류학 학사)

한국외국어대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인류학과에 지원했다. 태국에 살다 보니 다양한 문화를 접해온 것이 진로선택에 도움이 됐다. 치앙마이에서 살고 있는데 동포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선배가 조언을 해줘서 유학을 결심했다. 졸업 후에는 국제 NGO 단체에 들어가 세계인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태국과 비교하니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 뿌듯하다.

김은혜 (21, 그리스, 연세대 국제대학 테크노아트 학사)

대사관을 통해 장학제도를 소개받고 지원했다. 엔터테인먼트나 패션 관련 이벤트 기획 일을 해보고 싶다. 부모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공부하기 쉽지는 않지만 도전하는 삶은 젊은이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외국에서 성장하다 보니 한국의 조직



'재외동포 초청장학 사업'으로 모국 유학의 기회를 얻은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열정과 모국생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사진 좌로부터 배엘레나, 김은혜, 흥에카페리나, 함소리, 김주현, 유지현, 김서진, 김명자.

지향, 단합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발전 속도가 빠른 점 등 배울 것도 많다.

배엘레나 (24, 키르기스스탄, 연세대 정치학 석사)

고려인 4세로 비슈켈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모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대학시절 두 달 경희대에서 한국어연수를 받은 것이 모국유학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키르기스스탄은 혁명이 자주 일어난 나라다. 그렇기에 정치에 관심이 많다. 졸업 후에는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싶다.

말을 잘 알면서 동시에 한국유학 경험이 있어서 한국 기업 근무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 차 씨는 “유학생들 동안 모국의 말과 문화를 많이 익히는 것이 사회생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학과 공부뿐 아니라 대인관계 등 사교적일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대외경제연구원(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에 연구원으로 취업한 김부용 씨는 “조선족유학생이 지금 직면한 것은 한국에 중국유학생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한국 유학 온 조선족유학생은 5천 명이 안 되지만, 중국인 유학생은 7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자기 기본을 잘 마련해 놓는 것, 사회의 유용한 인간이 되면 직장에

서 먼저 꼭 찾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라질에서 온 장학생 곽수민(경희대대학원 국어국문과 석사과정) 씨는 “동포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온 환경과 문화 등 여러 면에서 한국 학생과의 경쟁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강의를 빠지지 말 것, 요약물 자주 할 것”을 주문했고 “성적 잘 받는 것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학생 출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한결같이 “낮선 땅에서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도전하는 자세로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어가 조금 서툴기는 하지만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장**

홍예카찌리나 (23, 우즈베키스탄, 한국외대 중국학부 학사)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지만, 중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배웠다. 2008년에는 한국에서 어학연수도 했다. 제대로 모국을 배우고 싶어서 유학을 결심했다. 최근에는 우즈베크에 중국기업과 중국인 진출이 눈부시게 늘어나고 있다. 졸업 후에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우즈베크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 보고 싶다.

함소림 (20, 일본, 서울대 생명과학부 학사)

아버지가 일본으로 회사 파견근무를 하면서 3세 때 일본으로 건너와 살고 있다. 초등학교는 현지 학교에 다녔지만, 중학교부터 동경한국인학교에서 공부해 한국어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학교에서 재단의 장학제도를 소개받고 지원했다. 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약사나 연구원의 길을 걷고 싶다.

김명자 (27, 중국, 연세대 법학 석사)

중국 도문 출신으로 북경 사범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사법고시에 합격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1년 이상 인턴 생활을 해야 변호사 자격증이 나온다. 실무 경험을 쌓기 전에 한국의 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차 긴밀해

지고 있어서 양국의 법에 정통할수록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친김에 박사까지 한국에서 마치고 싶다.

김서진 (20, 스페인, 연세대 생명공학 학사)

스페인의 라스팔마스에서 다섯 살 때부터 살았다. 라스팔마스는 원양어업의 전초기지로도 유명한 곳이다. 어려서부터 생물을 좋아했고 즐기세포 등에 관심이 많다. 계속 공부를 해서 이 분야의 연구소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연구원의 길을 걷고 싶다. 가족 중에 언니가 재단 장학생으로 서강대에서 정치외교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유지현 (20, 과테말라, 서울대 경영학부 학사)

의료사업을 하는 부모를 따라 다섯 살 때 과테말라에 이민을 왔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 유학과 한국 유학 사이에서 고민했다. 선진국으로 유학을 많이 가지지만 최근에는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동포 청년도 늘고 있다. 나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자각이 크기 때문에 모국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었다. 경영학은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기에 전공으로 선택했다. 우선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친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 **장**



지난 5월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영비즈니스리더 네트워크(YBLN) 상반기 포럼에 젊은 한상 70여 명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고해정 YBLN 회장을 비롯해 김영선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 승은호 코린도 회장, 김우재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차세대 한상네트워크 이끄는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성황

인도네시아에서 YBLN 상반기 세미나 · 네트워킹

차세대 한상 리더들이 자카르타에 총출동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영비즈니스리더 네트워크(YBLN) 상반기 세미나에 젊은 한상 70여 명이 모여 각자 비즈니스 노하우와 시장 정보를 교환했다.

YBLN은 지난 2007년 부산 세계한상대회에서 30~40대 젊은 한상 중심으로 결성된 친목단체로 이번 모임은 가을 세계한상대회 전에 열리는 중간모임에 해당한다.

YBLN의 이번 상반기 행사는 전체 회원 138명 중 70여 명이 행사에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성공한 대표적 한상으로 손꼽히는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은 30일 YBLN 만찬에서 “각국에서 모인 영비즈니스리

더 여러분을 자카르타에서 만나게 돼 기쁘고, 한상의 미래가 무척 밝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선배 기업인들의 노력을 잊지 말고 그 발자취를 잘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완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는 “승은호 코린도그룹 회장, 송창근 KMK그룹 회장, 김우재 월드옥타 회장 같은 분들이 영리더 여러분의 롤모델임을 잊지말아 달라”며 “영리더야말로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광주 세계한상대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일본 중국 브라질 미국 등에서 온 한상들은 경제세미나와 현지 산업 시찰 등으로 무한 잠재 시장 인도네시

아를 분석했다.

행사 준비위원장인 김종현 무궁화유통 사장은 “이번 모임은 회원들이 친목·비즈니스 정보 교환을 넘어 인도네시아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인도네시아의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면을 접함으로써 네트워킹 효과도 커졌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영리더들은 한상의 미래”라며 “글로벌 마인드와 지역 네트워크가 탄탄한 젊은 한상들은 지금도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5월 27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재외동포재단의 김종완 사업이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영리더 간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브라질에서 온 이상길 회원은 “영비즈니스리더 포럼은 50세 나이 제한이 있으므로, 세계한상대회 등 공식 행사에서는 나이 제한을 지켜주고, 신규 회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호주에서 온 이범수 회원은 “신규 회원은 지역 대표들을 통해 일차적으로 검증을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선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네트워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젊은 한상들은 5월 31일 하루 동안 자카르타 삼성전자, 한국도자기, 흥아타이어, KMK(신발생산업체) 등 공장을 방문해 현지 임금수준, 노사관계, 경제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일본 케이플랜그룹 회장인 고해정 YBLN 회장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차세대 한상들은 유통 IT 식음료 제조업 금융 등 5개 소그룹별 세미나에서 분야별 사업 기회 등을 집중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예를 들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최상민 ESD 대표는 현지 유망 사업으로 ‘건강검진센터’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도미니카엔 건강검진 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브라질 전자기기 업체인 노다지의 손정원 대표는 “전 세계 한상들이 들려주는 사업 얘기가 크게 도움이 됐다”며 “비행기에서 25시간을 보내며 온 것이 아깝지 않았다”고 전했다.

YBLN이 젊은 한상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회원 수도 늘고 있다. 2009년 세계한상대회 때는 50여 명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현재 138명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회원 수가 늘어나고 멤버들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업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29일부터 사흘간 광주에서 열리는 제12회 세계한상대회는 세계 40여 개국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 중간에 열린 YBLN 운영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중간모임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YBLN 중간모임은 2012년 도쿄 모임에 이어서 이번이 4회째로, 중간모임이 더 커지고 제대로 형식을 갖춘 모임으로 발전했다. 특히, 프로그램에 업종별 소그룹 모임을 시행하는 등 세계한상대회 영비즈니스리더포럼과 연계하며 참가자들의 네트워킹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돋보였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YBLN 운영진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모임의 발전을 돕고 내실있는 네트워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장**



대회에 참가한 영비즈니스리더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대표적 한상인 송창근 KMK그룹 회장의 공장을 견학하기도 했다. 사진 앞줄 오른쪽 첫 번째가 송창근 회장(좌). 세미나를 마친 영비즈니스리더들은 6월 1일부터 2일까지 자카르타에서 단합대회를 가졌다(우).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신임 이사장 “재외동포 맞춤형 정책 실천할 것”

조 규형(62) 재외동포재단 신임이사장은 “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뿌리 의식을 가지고 모국에 귀속감과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취임한 조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재외동포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세계 각지의 우수한 한인 인재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부상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정부도 재외동포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재외동포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맞춤형 정책을 주문하는 등 어느 정부보다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동포들이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실무를 맡은 재단도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반영해 수요자에게 맞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외무고시 8회로 1974년 외무부에 입부한 조 이사장은 외교통상부 중남미국장, 주멕시코 대사, 주브라질 대사를 역임했다. 지난 2010년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공동부위원장을 지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지역회의 부의장으로도 활동했다. 다음은 조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Q 임기 중 포부가 있다면.

A 내일을 짚어질 차세대 동포들이 모국에 귀속감과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글 교육, 한국 문화 체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전 세계 2천여 개의 한국학교의 교사를 교육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내실을 다지겠다. 또 100여 년 전 쿠바, 멕시코, 사할린, 중앙아시아 등으로 간 한인의 후손에게 도움을 주



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책무다. 한정된 자원 안에서라도 관심과 배려를 표하는 것이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은.

A 외교 공무원으로 35년을 일했다. 과거에는 재외동포는 육성하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제는 국력의 첩병이 됐다고 생각한다. 동포의 활약이 우리 국력이 신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국력이 커질수록 동포들이 주류사회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가와 상부상조, 윈-윈하는 관계라고 본다.

Q 박근혜 대통령이 재외동포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는데 재단의 역할은.

A 박근혜 정부의 화두가 ‘창조경제’인데 이는 융합을 전제로 한다. 각기 다른 경험이 있으면서도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는 동포들이 창조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세계 각지에 우수한 한인 인재들이 있다. 재단은 어느 지역, 어느 분야에 어떤 인재가 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코리안네트워크(GKN)를 구축했다.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으려 한다.

Q 재외동포교류센터 건립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A 외국에서는 이스라엘, 일본 등이 재외동포 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교류센터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동포들이 모금하거나 매칭펀드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 ‘차세대 육성’ 집중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 광장동 웨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오는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서울 광장동 웨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개최되는 한인회장대회 기간 중 ‘국내 청년 인재들의 해외진출 및 취업 지원’과 ‘차세대들의 한인회 활동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재외동포재단이 설정한 올 세계한인회장대회의 공식 주제는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이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 최근 신입회장으로 선출된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과 황찬식 재중국한인회장을 비롯한 약 76개국에서 380여 명의 한인회 리더들이 대거 참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6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정당별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전체회의에서는 한인회별 운영사례를 공유하게 된다. 또, 대회 참석자들은 한인사회 발전과 모국과의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등 다양한 한인사회 발전 방안을 상호 논의하게 된다.

지난 2000년 첫 행사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해 온 한인회장대회는 올해로 14회째를 맞게 되며, 이번 대회는 오공태 재일민 단중앙본부 단장과 박종범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이 대회 4일간 공동의장을 맡아 이끌게 된다.

이번 한인회장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회 첫날인 6월 18

일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오후 5시부터 여야 정당 대표 등 국내외 5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한인회장대회의 막이 오르는 개회식과 국회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 주최 환영만찬을 잇따라 진행한다.

대회 이틀째인 19일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호국보훈’을 주제로 특강을, 전성철 IGM 세계경영연구원 회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인의 가치’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특히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정책포럼과 지역별 현안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정당 초청 재외동포 정책포럼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참석해 각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 현안토론에서는 9개 지역으로 나뉜 ‘국내 청년 인재들의 해외진출 및 취업지원’과 ‘차세대들의 한인회 활동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병세 외교부장관 초대 오찬에 이어 2부 특강으로 9개 지역별 현안토론의 장이 그랜드 워커히 아트홀과 파인룸, 오크룸, 코스모스룸, 무궁화홀 등에서 진행되며 국회의장 주최 만찬은 지하 2층 비스타홀에 준비된다.

행사 사흘째인 20일엔 전체회의의 1부 순서로 전날 지역별 현안토론 결과 발표가 1층 무궁화홀에서 실시되며, 박원순 서울시장 주최 오찬이 마련된다. 또 법무부 국적난민과, 병무청 병역지원과 관계자가 초대돼 재외동포 이중국적과 자녀 병역에 관해 특강을 실시하고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이다.

오후 세 시부터는 약 3시간 가량 전체회의를 열어 오공태 공동대회의장과 박종범 공동대회의장 진행으로 한인회 운영사례 발표, 대회공동의장 추인 등의 안건이 처리된다. 오후 6시부터는 폐회식 및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주최 환송만찬이 지하 2층 비스타홀에서 진행된 후 3박4일간의 대회 공식일정을 마무리한다. **장**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동포 복수국적 완화 F-4 체류자격 확대된다

고용과 성장 위해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이른바 '창조경제' 분야의 청년 우수인재 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요건이 완화되고,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 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국적 완화로 청년 우수인재 동포 유치

이날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 위한 제도 혁신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청년 우수인재 동포의 복수국적 요건 완화와 관련해,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65세→60세→55세)키로 했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차원에서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를 확대하고,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차원에서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해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서도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과 관련해,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청과의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서 외국국적 행사않겠다는 서약만 필요”

지난 2010년 4월 21일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그 허용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다.

첫째,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우수인재, 해외입양인, 결혼이민자,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등에 대하여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둘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우리 국적을 선택할 경우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였다.

단,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원정출산자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복수국적이 허용된 사람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고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며, 복수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포기(국적이탈)하려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포기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에도 원정출산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국적포기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또한 복수국적자가 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거나, ‘외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도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한 후 이에 불응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되도록 하였다.



지난 2010년 4월 21일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번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그 범위 등이 더욱 확대됐다. 사진은 2010년 4월 국회서 열린 국적법 개정 세미나

이와는 별도로 국적선택 전이라도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청문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경과조치로서, 개정법률이 복수국적을 허용키로 한 취지에 따라 지난 1998년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법 하에서 국적선택불이행으로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던 사람 중 여자 전부와 군복무를 마친 남자에 대해서는(단, 원정출산자는 제외) 2년 내에 우리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형평차원에서 구법 당시 우리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역시 ‘외국적불행사서약’만 하면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17)의 시행 첫해로서 올해 주요 과제 중에는 재외동포의 역량 개발과 체류지원, 귀국 후 안전한 정착유도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동포 사회 역량결집 및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동포 사회 역량 결집, ▲한글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및 정체성 함양,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를 통한 모국과 동포 사회간, 동포 사회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 ▲육아도우미 근무 희망 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지정 단체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기간 취직 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검토, ▲재외동포가 국내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포함됐다. **▶**

58회 현충일 추념식 애국선열의 뜻 되새겨

“선열의 희생과 헌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에 헌화 및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우 리 대한민국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반세기 만에 기적 같은 발전을 이뤘고 도약을 꿈꾸는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비록 선열들께서는 이런 자랑스러운 조국을 보시지는 못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추념식에는 3부 요인, 정당대표, 헌법기관장 등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단체장, 국무위원 등을 비롯하여 전물군경 유족과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유족들, 사회 각계 대표,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렸다.

올해 추념식에는 특별히 배우 김혜자 씨가 추모 헌시 낭독자로 나섰다. 영상 상영에 이어 단상에 오른 김혜자 씨는 ‘17회 보훈문예작품 공모전’에서 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그대들은 푸른 단비가 되어’를 낭송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대표 5명에게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를 달아주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진 추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스스로 안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하나 된 힘이야말로 경제 회복의 원동력이고, 안보를 지키는 국가의 최고 자산”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변화에 대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대통령, 5·18 기념사서 ‘국민통합’ 강조

“5·18 민주화 정신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대선공약인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이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 만에 참석한 이날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한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 등의 언급을 통해 국민대통합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국민대통합’은 박 대통령 대선 캠페인의 핵심 슬로건이었다. 따라서 취임 80여 일을 맞은 박 대통령이 이날 현대사의 ‘아픔’인 5·18 행사의 기념사에서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상생의 시대를 열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예견된 바였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새 정부 조각(組閣)을 비롯한 고위직의 인선에서 ‘탕평인사’를 요청해 왔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이날 ‘국민대통합’ 강조를 계기로 호남 인재 중용 등 새 정부의 인사탕평과 통합행보가 가시화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비를 넘어선 우리 앞에 지금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며 “세계가 놀란 경제성장으로 국가는 크게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앞서 행방불명자 묘역 내 고(故) 임옥환님의 묘비를 둘러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에서 열린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치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분야로 더욱 확장시켜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가족을 잃고 벼를 떠나보낸 그 아픈 심정은 어떤 말로도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저 역시 매년 5·18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과 광주의 아픔을 느낀다”고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영령들께서 남긴 뜻을 받들어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숙연한 표정으로 ‘5·18 민주항쟁 추모탑’에 헌화, 분향한 뒤 묵념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 직전 행방불명자 묘역을 둘러봤고, 고(故) 임옥환 씨의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묘지관리소장으로부터 “임 씨가 17세 때인 1980년 5월 22일 행방불명됐다”는 설명을 듣고서 “살아계셨으면 거의 50세 정도 됐겠다”, “시신을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이냐”, “가족은 부모님이 계시느냐” 등으로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부총재였던 2000년 기념식 하루 전날인 5월 17일 처음으로 5·18 희생자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4~2006년에는 야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고 대선주자였던 2007년과 지난해에는 하루 전 묘역을 찾았다.

특히 2004년에는 기념식 외에도 두 차례 더 5·18 묘역을 찾았는데 3월 28일 대표 선출 첫 지방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해 참배했고, 8월 30일에는 한나라당 의원 100여 명과 단체로 참배했다. **[장]**

미국 한인 이민 사상 ‘첫 여성대표’ 탄생

이정순 미주총연 회장 “주류사회 진출 적극 지원”

“저는 한번 하면 후회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임기 2년 동안 후회 없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봉사를 앞세우고 내실을 다져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를 220만 재미동포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 만들고 싶습니다.”



110년 전 미국으로 한인 이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여성이 동포사회 대표가 됐다.

미주총연은 지난 5월 18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힐튼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이정순(64) 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을 제2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선거는 유진철 현 회장의 불출마 결정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이 회장의 추대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정견 발표를 통해 “고국의 발전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돕고 안으로는 한인 1.5세와 2세의 정계 등 주류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흑인사회 등 다른 소수 인종과의 관계 증진에도 더욱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출범 36년째를 맞은 미주총연은 미국 50개 주와 도시에 산재해 있는 한인회를 아우르며 250만 미국 한인사회를 대표한다.

이 신임 회장은 인터뷰에서 “재미있게 일하다 보면 미주총연을 바라보는 시선도 확 달라지지 않겠느냐”며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어 “언론에서는 ‘여성 회장’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 민주평통 협의회장 등을 하면서 여성, 남성 편을 갈라본 적도 없고, 여성이라고 해서 불편한 것도 없었다”며 “36년 미주총연 역사에서 이제는 여성 회장이 나올 만하기에 당선한 것뿐”이라고 당당하게 소신을 밝혔다.

그는 “미주총연 산하의 서북미·서남부·중서부·중남부·동북부·동중부·동남부·플로리다 8개 연합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각 연합회에서 재미동포 사회를 위해 하나씩 정책

을 내놓고 실행한다고 해도 8개 사업이 된다”며 “각 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회장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미주총연의 전직 회장이나 임원들은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차세대 인재 발굴과 인력 지원 시스템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한국 정부와 함께 구축하는 일에 나설 것을 밝혔다. 새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 실현에 협력하고, 또 유진철 전 회장이 힘써온 ‘한-흑인 관계’ 개선을 확대 강화하는데 총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1992년 LA 폭동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하다. 한-흑인 대립은 우리의 손실이며 아픔이다. 전미유색인종발전협회(NAACP)와 연 2회 정도 대표 회담을 열어 의견을 교환할 생각이다”고 청사진을 소개했다.

1977년 도미한 그는 1999년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에 당선된 이후 민주평통 샌프란시스코협의회장, 미주총연 서남부지역협의회장, 상임위원, 부회장을 지냈고,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

김재현 연합뉴스 애틀랜타 특파원, 왕길환 기자



5월 1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힐튼호텔에서 열린 미주한인회총연합회 25대 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정순 전 샌프란시스코 회장이 무투표 당선된 뒤 당선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국에 5천만 달러 투자하는 홍콩 韓商

신재천 빅오션리소스 회장 “20억 달러 가치 달성하겠다”



“강원도와 (주)건농에 5천만 달러(약 567억원)를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3년 안에 20억 달러를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최근 홍콩법인 빅오션리소스의 신재천 회장(60)은 “지금까지 홍콩 한인사회는 물론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에 얼굴을 한 번도 내밀지 않고 사업에만 매진해왔다”며 “사업 내용, 매출액, 직원 숫자 등을 처음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가 홍콩에 있는 빅오션리소스는 몽골,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 18개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1천700명의 직원을 거느리며 연간 1조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숨은 거상(巨商)’으로 지내던 그는 강원도가 6월 9~11일 강릉에서 개최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박람회에서 거액의 투자 의향서 제출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받았다.

신 회장은 건농의 지분 80%를 인수한 뒤 새로운 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건농은 미생물을 활용해 식물 성장 촉진, 어류 성장 촉진, 축산 분뇨 악취 제거, 갯벌 정화, 공장 오·폐수 정화, 기능성 식품 제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이오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

“오는 11월까지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 공장과 연구소를 지어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곳에서 ‘KS 50’이란 이름의 미생물을 생산할 겁니다. 이미 대전 오폐수 종말처리장, 부산 장림 피혁단지 폐수 처리장, 중국 성서 오폐수 종말처리장, 목포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에 공급하면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생산량의 95% 이상은 해외로 수출할 계획이다. 이미 중국 내륙 지방의 민물새우 양식장 60곳으로부터 주문을 받아놓았다. 양식장 물을 정화시키고 생산량의 80% 증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미래를 내다보고 시장에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가는 ‘창조형’ 이어야 합니다. 마침 훌륭한 신기술을 지닌 기업을 만나 고국에 아낌없이 투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 발전 국가들의 오·폐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어 시장의 규모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신 회장은 샐러리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978년 현대건설에 입사했다가 4년 뒤 대우건설로 옮겼다.

1980년부터 리비아 건설 현장에 파견되기도 한 그는 1993년 이 사급으로 초고속 승진했지만 이듬해 샐러리맨에 한계를 느껴 개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건설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무역을 시작했다.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자 중국에서 공급처를 확보하려고 1997년 홍콩에 빅오션리소스 법인을 설립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개발 붐에 힘입어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그는 만족하지 않고 구리, 니켈, 유연탄, 고철 등을 인도네시아, 몽골, 러시아에서 수입해 중국에 파는 등 업종을 다각화했다. 중계무역에 한계를 느낀 그는 2001년 몽골 도르노드 지역의 초이발산에 있는 유연탄 광산을 사들였다. 2005년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시에 담배공장을 세워 러시아 전역에 판매하고 있다.

신 회장은 “본사는 홍콩에 있지만 판로 확보를 위해 한국, 몽골,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금세 1년이 지나간다”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드러냈다. **장**

‘2013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사전 신청 접수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는 국내외에서 3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올해 세계한상대회의 슬로건을 ‘창조경제를 이끄는 힘, 한상 네트워크!’로 확정하고, 8월 30일까지 참가자 사전 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은 대회 등록 사이트(www.hansang.net 또는 hansang.korean.net)에서 가능하고, 신청 관련 문의는 한상대회 본부사무국(TEL : 02-3415-0158/0150)으로 하면 된다. 사전 등록기간인 8월 30일 안에 신청하는 참가자에게는 참가비 할인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조규형 재단이사장은 “전 세계 각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상의 역량을 결집하는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우리

한상들이 저력을 발휘해 모국의 창조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슬로건을 만들었다”며 “국내외에서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 내외동포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제12차 세계한상대회는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기업전시회를 비롯해 한상 리딩CEO 포럼과 영비즈니스 리더 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및 멘토링세션,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한상 비즈니스 서밋, 비즈니스 네트워크 파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코리안넷 ‘카카오스토리’ 개설

코리안넷 카카오스토리(Kakao Story)가 개설되었다. 친구 추가 방법은 카카오스토리를 실행한 다음 친구 검색에서 ‘코리안넷’을 검색하면 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카키오스토리에 친구 맺기를 한 후 이벤트 글에 참여확인 댓글을 남기면 당첨자에게 소정의 선물 준다.

이벤트 기간은 6월 5일부터 30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7월 4일에 할 예정이다. 특히, 친구 공유 횟수만큼 본인의 이름이 추천 명단에 중복 추가되며, 추천을 통해 20명에게 온라인문화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국내 당첨자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며, 국외 당첨자는 아마존 상품권으로 선택 가능하다.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제7회 세계한인의날을 맞아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사진 주제는 ‘코리아 타운’, ‘재외동포 삶의 현장’ 두 가지 분야로 전 세계에 형성돼 있는 코리아타운(한인타운)의 전경사진, 이국땅 직업(사업) 일선에서 일하는 재외동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www.korean.net 및 www.okf.or.kr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입상작은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또, 응모작 중 우수작 100여 편을 선정해 국내 전시회를 개최해 일반 국민에게 선보이고 입상작은 재단 달력 제작 사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1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원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13 재외동포 모국수학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년 68명이 6월 5일 안보현장을 견학했다.
2 안보현장 견학에 참가한 연수생들은 육군 30사단을 방문 해 아전부대 견학, 전차·장갑차 탑승체험 등을 했다.

분단 현실 피부로 느낀 재외동포 모국수학생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일본에는 우익이 들끓어요. 그러면 그들이 ‘한국인은 이 땅에서 떠나라’고 구호를 외치며 힘들게 했는데, 비무장지대(DMZ)에 와 보니 고국의 분단 현실이 훨씬 엄중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재외동포 2세 임창평(29) 씨는 5일 육군 30사단 방문을 시작으로 제3땅굴, 도라전망대 등 생전 처음으로 안보현장을 둘러보고는 “고국의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사랑’을 배웠다”고 털어놓았다.

임씨와 함께 동행한 브라질 한인 2세인 빅토르 정(27) 씨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고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 브라질에 있는 친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면 이번에 보고 들은 것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들은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원(원장 박창수)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2013 재외동포 모국수학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등 14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청년 68명이 연수에 참가하고 있다.

연수생들은 이날 안보교육, 아전부대 견학, 전차·장갑차 탑승체험 등을 비롯해 도라전망대, 제3땅굴, 전쟁기념관 등을 둘러보며 한국전쟁 이후 민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카자흐스탄에서 공군 대령으로 예편한

고려인 3세 발레리 최(58) 씨는 아내인 스베틀라나 옴(55) 씨는 “같은 민족이 둘로 나뉜 아픈 현실이 가슴 깊이 아픔으로 다가온다”며 “속히 통일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모국 수학 참가 이유에 대해 “단 한순간도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잊은 적은 없지만 살기에 바빠서 한국어나 문화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서 “뒤늦게나마 제대로 배워서 손자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제 뿌리와 모국의 현실에 관해 배울 소중한 기회를 준 한국 정부에 감사하다”며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충실히 배우고 있다”고 밝혔다.

공주대 한민족교육원은 “재외동포 학생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보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민족교육문화원은 720만 재외동포와 한국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및 보급, 한국 전통문화 체험, 기업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

이민사의 산증인... 전 고려일보 한글판 편집장 독립투사 정상진 선생의 뜻깊은 일생



정상진 선생은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 후 조국 해방을 위해 소련군으로 자원입대해 싸웠고,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도 평생을 고려인의 지위향상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일에 매진해왔다. 사진은 명절 행사에 참석한 정상진 선생(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200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내의 모 식당에서는 스탈린의 폭압적인 고려인 강제이주를 온몸으로 기억하는 산증인 중의 한 명인 정상진(鄭尙進·95) 선생의 90세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조촐하게 열렸다.

고려일보 한글판 편집장을 역임했던 김성조 선생을 비롯하여 고려인 동포 10여 명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아내와 함께 참석했던 기자는 격동의 20세기, 우리 역사의 산 증인이시자 인류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인했던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온몸으로 경험하신 정상진 선생의 삶의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연로해진 정상진 선생이 딸이 사는 모스크바로 가시겠

다고 결정함으로써 나의 이 다짐은 실행되지 못했다. 그 후 매년 계절의 여왕 5월이 돌아오면 그분을 떠올리면서 그분이 알마티에 사실 때 그의 삶의 얘기들을 충분히 듣지 못했던 나의 게으름을 한탄하곤 했다.

올해는 그분이 95세가 되는 해이다. 물론 따님이 정성껏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렸겠지만 기자는 그분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엿볼 수 있는 글을 쓰면서 그분의 95세 생신을 축하하고자 한다. 더불어 “내 마지막 꿈은 조국의 통일을 보는 것”이라면서 한국과 고려인 청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평소 강조하신 그분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한다.

그는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었던 조선 사범대 2학년 때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를 맞게 된다. 제빵사였던 정상진 선생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2천500여 명의 민족지도자들은 지난밤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17만여 동포들은 누렇게 익은 별판의 곡식과 마당에서 모이를 주워 먹는 닭 한 마리에도 손대지 못한 채 중앙아시아 초원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정상진 선생은 당시를 “몇몇 운 좋은 가족들은 객차를 타고 이주를 당했지만,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화차를 타고 짐승처럼 중앙아시아로 끌려왔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후 그는 깎조르다로 자리를 옮긴 조선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카자흐스탄 쉬콜라(초·중·고교)에서 러시아문학을 가르치면서 교편생활을 하게 된다.

우리 민족에게 씌워졌던 ‘불순민족’이라는 멍에는 피 끓는 청년 정상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 뒤 2차 세계대전이 터졌다. 소련은 나치 독일과의 유럽 전선, 일본제국주의자들과의 동아시아 전선에 걸쳐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초반 열세를 만회하고 1945년 5월 9일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들여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때부터 소련군은 시베리아와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일제 관동군과의 전투에 전력을 집중하였다.

이 시기 소련은 한반도 진격 작전수행과 종전 후 일제가 사라진 조선에서 소련의 정치적 영향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정치공작대를 조직하게 된다.

1937년 강제 이주 후 중앙아시아에서 새롭게 터전을 일구어 가던 고려인 중 일부는 이때 KGB의 갑작스러운 호출로 러시아 땅으로 불려가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그 후 일제 치하의 조국으로 보내진다. 어떤 이들은 한복을 입고 서울과 평양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시골 산골까지 들어가서 일본인 동향과 사회민심을 살피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선 진공 작전에 실제로 투입되는 소련군의 통역으로 복무하기도 했다.

정상진 선생은 소련군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오로지 ‘조선해방 전투’에 참가한다는 그 감동을 가슴에 품고 함경북도 웅기, 나진, 청진 등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다.

정상진 선생은 “그 강력하던 관동군이 소련군의 공세에 제대로 된 반격 한번 하지 못한 채 힘없이 후퇴하던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목격했을 때와 우리 부모가 등졌던 고향 땅을 다시 밟는 순간,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자주 들려주셨다.

그 후 그는 북한 정권수립을 도우라는 소련 당국의 지시에 의해 평양으로 이주하여 불철주야로 일하였다. 그 공로로 북한의 문화선전성 제1부상(우리의 교과부 차관에 해당)까지 역임하였다.

그러나 그는 1957년 북한의 ‘반소’ 정책에 의해 10여 년간의 조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왔다. 카자흐스탄에 돌아온 그는 재소련 한인 신문인 레닌 기치 신문(현 고려일보)의 기자로 30여 년간 근무했다. 특히, 은퇴 후 일흔이 넘는 나이에 그는 고려일보의 열성 독자로서 왕성한 투고활동을 통해 고려일보의 발행을 도왔다.

한-소 수교와 함께 물밑듯이 진출한 한국기업에 우리말과 러시아어에 능통했던 고려일보 기자들이 통역으로 대거 진출함으로써 신문을 제작할 기자들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동포애, 조국애가 나이를 잊게 하는 듯했다.

그의 조국 사랑은 2004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주최한 동포 간담회에서 빛을 발했다.

“고려인 동포들이 이렇게 잘 살고 계신 줄 미처 몰랐다. 이렇게 잘 살고 계시는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말에 답하면서 그는 “우리들의 자녀, 청년세대들은 모국어도 잊었고 강제이주도 잘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 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조국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 그의 이 부탁은 노 대통령에 의해 이후 한글학교와 고려인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져 고려인 동포사회를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으로 기억된다.

또 한편으로 “내 부모가 비록 무식쟁일지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내 조국이 비록 남쪽이 분단되어 서로 싸우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내 마지막 꿈은 조국의 통일을 보는 것”이라던 그분이 말씀이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다.

실로, 정상진 선생은 20세기 한민족 시련의 역사, 영광의 순간마다 함께 했다. 스탈린의 강제이주, 해방의 기쁨, 북한 정권수립과 한국전쟁 그리고 역사적인 한-소 수교와 소련의 붕괴 과정을 온몸으로 겪으며 오로지 ‘한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는 한 길로만 걸어왔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젊은이 못지않게 정정하셨던 정상진 선생은 95세 생신을 얼마 앞두고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와 기자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정상진 선생님,

“95세 생신을 진심으로 생신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우리 역사 앞에 충분히 열심히 사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꿈을 위해 후배들이 미력하나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장**

김삼욱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상무위원, 한인일보 주필

우리말에는 비슷한 뜻을 가지면서도 그 쓰임새는 사뭇 다른 경우가 많다. 또 뜻으로는 맞게 쓰인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관계의 말이어서 피해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면서도 뜻을 잘못 알고 쓰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예를 들어 올바른 한국어 사용법을 알아본다. (자료제공 : 한국방송출판 '바른말 고운말')

발사돈 / 발걸이

한글 맞춤법에는 단어의 끝 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는 것은 그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이삼 일 전이라는 뜻의 '엇그저께'라는 말을 예로 들어 보면, 원래 이 말은 '어제저께'가 원말인데, 앞부분에 있는 '어제'에서 모음 '에'가 줄어서 남은 자음 '저'를 앞 음절의 받침으로 적어서 '엇그저께'가 된 것이다. 그밖에도 '모든 종류의'라는 뜻의 '온갖'도 '온가지'라는 말에서 모음 '이'가 줄어서 '온갖'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줄어지는 음절의 첫소리 자음 대신 받침 소리를 적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사돈'을 이르는 말로 '바깥 사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깥'이라는 말이 '발'으로 붙어서 '발사돈'으로 된다.

또 다른 예로, 씨름 경기 중계에서 '발걸이'라는 용어를 들을 수 있다. '발걸이'는 씨름할 때 다리를 밖으로 대서 상대방의 오금을 걸거나 당기거나 또는 미는 재주를 말하는데, 이 경우도 역시 '바깥'이 줄어서 '발'이 된 것이다.

선택사양은 선택사항

요즘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광고나 집으로 들어오는 광고지들을 보면 '선택사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곤 한다. 자동차의 경우를 보면 '에어컨'이나 '에어백' 등과 같은 것은 '선택사양'이라고 적혀 있고, 아파트의 경우 '벽지'나 부엌시설 같은 것을 '선택사양'이라고 적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문품의 경우에 선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품목을 가리킬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인 이 '사양'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일까?

이것은 우리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일본에서 만들어 쓰는 한자어인 '시요'를 우리식 발음으로 '사양'이라고 읽는 것에 불과한 말이다. 그리고 '옵션(option)'이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영어 표현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문품의 내용이나 모형을 제시한 것이라면 그냥 우리말 표현대로 '선택내용'이라든가 '선택사항'이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복잡한 설계 그림이나 내용을 적은 것이라면, '사양서'라는 일본식 한자어 대신에 '설명서' 또는 '내용서'라고 쓰면 될 것이다.

되고 / 돼고

언제부턴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하는 말의 내용이 자막으로 처리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이 유행처럼 돼서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사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자막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맞춤법이 잘못된 글자들이 자주 눈에 띄어서, 이런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언어 공해로 작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오류로 '되다'라는 말과 관계 있는 활용형을 들 수 있다. '가면 안 돼요.'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보자. '되다'에 서술형 종결어미 '~어요'가 붙을 때는 '되어요'가 되는데, 이것을 줄여서 나온 형태가 바로 '돼요'다.

그렇다면 '오늘은 되고 내일은 안 되지요.'와 같은 예문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 경우에는 '되고'와 '안 되지요'는 두 개의 표현이 있는데 둘 다 '되'로 쓰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되고'와 '안 되지요'는 '되어고'나 '안 되어지요'라는 말이 줄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느 것이 맞는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그 말을 '되어'로 풀어서 사용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창**

하늘을 나는 나무

김성만(중국) 2012 재외동포 문학상 시부문 가작

북경 외곽 장자커우
나무 한 그루
하늘을 난다.
운동장가에서 소학교를 지키며
한 마리 큰 새가 되어
비상한다.

아이가 나무 옆에
서기만 하면 새가 된다.
이 새는 북경에도 가고
상해도 간다.
이제 파리 런던 뉴욕을 난다.
무지개 찾아

나무는 다 말라버린 땅에서
줄넘기를 한다.
아이들보다 키가 커야한다고
그래야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언제든 훌쩍 날 수 있는데도
비상하는 연습을 한다.
땅에 뿌리 깊이 박고



다채로운 비경의 200리 해안 **삼척**

강원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삼척은 위쪽으로는 동해, 왼쪽으로는 정선과 태백, 아래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 봉화와 접하고 있다. 서울에서 가려면 영동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동해까지 간 뒤 7번 국도를 따라 달리면 된다. 부산에서는 7번 국도나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버스를 이용할 경우 각각 4시간, 5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삼척 여행을 할 때는 주로 7번 국도와 38번 국도를 따라 이동한다. 해안가에 조성돼 있는 7번 국도 주변에는 해변과 항구를 비롯해 새천년 해안도로, 해양레일바이크, 황영조 기념공원, 해신당공원, 월천리 속섬 등이 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고 하지만, 섬만 없을 뿐 볼거리가 많다. 해안선의 길이가 80km에 달하는 삼척에는 이곳저곳에 시선을 잡아끄는 진경이 감춰져 있다.

삼척 시내에 이른 길손은 대개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 드라이브에 나선다. 굽이돌 때마다 멋진 경치가 펼쳐지는 새천년 해안도로부터 잔잔한 강물에 해송이 떠 있는 듯한 월천리 속섬까지 매력이 각양각색이어서 수십km의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다. 또 15개가 넘는 해수욕장과 흥미로운 주제로 꾸며진 공원, 고즈넉하고 정감이 있는 포구, 싱싱한 생선회를 맛볼 수 있는 항구가 곳곳에 자리해 있다.

자동차로 삼척의 해변을 빠르게 주유했다면, 다음에는 바다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기 위해 해양레일바이크를 타는 것이 좋다. 지난해 개장한 해양레일바이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선로가 바

다와 나란히 설치돼 있다. 궁촌역과 용화역 사이의 5.4km를 40여 분 동안 달리다 보면 그늘을 드리우는 솔숲과 물빛이 유난히 고운 해변, 루미나리에를 연상시키는 긴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는 내리막에서는 선선한 바람이 몸을 식혀준다.

‘바다열차’는 해양레일바이크와는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명물이다. 삼척역과 강릉역을 오가는 바다열차는 연인을 위한 프로포즈를 제외하면 모든 좌석이 해안을 바라보도록 설치돼 있다. 일반 기차보다 훨씬 큰 창문을 통해 추암역, 정동진역 등 해돋이로 이름난 동해안의 절경을 조망할 수 있다.

삼척이 항구도시이긴 하지만, 명승지가 바다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삼척과 태백이 맞닿아 있는 백병산에서 발원한 오십천을 비롯해 골짜기 사이를 굽이치며 흐르는 수많은 물줄기들은 구석구석에 수려한 계곡과 폭포를 낳았다. 물이 분는 여름이 되면, 피서객들이 명당자리를 찾아 몰려든다.

오십천은 동해로 유입되기 전 삼척 시내를 지난다.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죽서루(竹西樓)는 오십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 중건된 후 여러 차례 수리를 거쳤지만, 건축미는 여전히 훌륭하다. 봄날이면 뿔나무와 산수유나무, 모란에서 꽃이 피어 화사한 모습을 연출한다.

자녀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체험 마을에서 허룻밤 묵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강원도의 전통 가옥인 너와집이 있는 신리 너와마을에서는 물고기를 잡고 옥수수과 감자를 구워 먹을 수 있으며,



1



2



3



농촌진흥청이 봄 여행지로 추천한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어촌체험마을의 해변 전경.

가시오가피마을에서는 가시오가피를 이용한 염색과 족욕을 해볼 수 있다. 또 도계읍에는 유리 장식품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마을도 있다.

한반도의 동굴은 강원도와 제주도에 모여 있다. 그중에서도 삼척은 크고 작은 동굴 50여 개가 산재해 있는 최대 밀집 지역이다. 특히 대이리 동굴지대에는 물이 석회암을 녹이는 용식작용에 의해 만들어진鍾유굴이 많다. 이곳에 있는 동굴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 내부 지형이 독특하기로 명성이 높다.

대이리 동굴지대의 산중턱에 위치한 대금굴은 2007년 일반에 공개됐다. 도보로는 접근할 수 없어서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해야 한다. 모노레일에 탑승해 가파른 경사를 올라 깜깜한 동굴 내부를 140m 정도 들어가면 동굴 탐험의 출발점이다.

대금굴 여행은 놀라울 만큼 방대한 양의 물이 떨어져 내리는 폭포에서 시작돼 고요하고 묘한 분위기가 감도는 연못에서 마무리된다. 793m 길이의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鍾유석과 석순을 만날 수 있다. **▶**



4



5

- 1 해발고도 0m인 강원 삼척해수욕장을 출발해 1천340m인 정선 하이원 골프장에서 끝을 맺는 '하이원 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해변도로를 사이클로 질주하고 있다.
- 2 삼척 해양 레일바이크는 동해안 바닷가를 따라 근덕면 궁촌리에서 용화리까지 5.37km를 달리며 바다와 해송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 3 2007년부터 일반인에게 공개된 대금굴은 793m 길이의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다양한鍾유석과 석순을 만날 수 있다.
- 4 관동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죽서루(竹西樓)는 오십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세워져 있다.
- 5 삼척은 항구도시이며 주변에 해수욕장도 많다. 삼척해수욕장 해변에서 바라본 동해 일출

2013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 공모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2013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상'을 시상하고자 논문을 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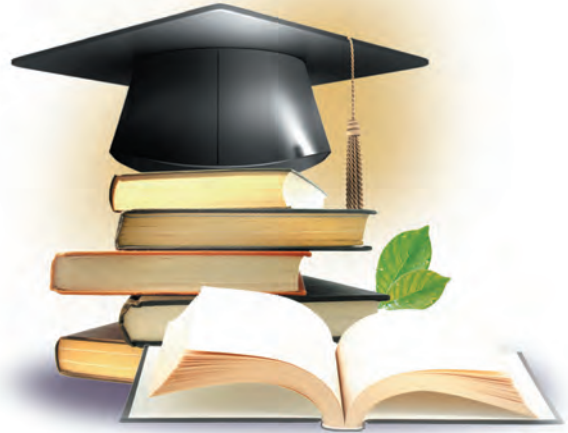
공모대상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사이에 국내·외에서 발표, 학위 수여 또는 심사 완료된 재외동포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이다. 또한, 선정된 후 재외동포재단 웹사이트(www.korean.net)에 게재 및 관련 학술대회에서 요약발표가 가능한 논문이어야 한다.

선정기준은 ▲학위논문의 학문적 완성도 ▲정부정책 및 재외동포재단 사업과의 연계성 ▲논문주제의 시의 적절성 등이며, 입상자는 오는 9월 중 통보하고 코리아넷(korean.net)에 공지한다.

시상은 최우수논문상(1편)과 우수논문상(4편)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상장 및 학술장려금 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식은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국외 거주자 경우, 재외공관에서 시상식 개최)

응모방법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한국시간 기준)까지 ▲응모서·지도교수 추천서·학위증명서 ▲응모논문 원본 2부(우편 제출) 및 PDF(이메일 제출)·요약본(선택사항) 등을 재외동포재단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히, 참가신청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양식은 코리아넷



(www.korean.net)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이번 논문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재외동포재단(82-2-3415-0093, moses@okf.or.kr)으로 하면 된다.

동포재단 관계자는 “재외동포 조사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 공모전에 국내·외 신진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자후기 _ 이민선 서울

평소에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지는 않지만 음악홀 등에서의 콘서트에는 여건만 되면 꼭 참석합니다. 얼마 전 러시아 국립극장에서 지휘자로 활약한다는 노태철 선생의 내한 공연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웅장하고 장엄한 러시아의 서정이 한국인 지휘자의 손끝에서 조율된다고 하니 놀랍고 기대가 됐죠. 마침 예술의전당과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반가운 마음으로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노 지휘자는 매번 내한 공연마다 새터민 가족 등 다문화 가정을 초청한다는데 이날은 무대 뒤편 자리에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곡인 '백조의 호수' 음악을 러시아 본고장의 오케스트라로 듣는 행운은 무척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앙코르 공연에서 보여준 노 지휘자의 친절한 해설과 다양한 레퍼토리도 재미있었고요.

공연이 끝나고 노태철 지휘자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 '재외동포의 창'에 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에서 당당히 활약하는 모습이 뿌듯해서 이제 부티라도 열심히 응원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HANIN

창조경제 희망한국,
함께하는 세계한인!

2013 세계한인회장대회

2013 World Korean Community Leaders Convention

2013. 6. 18(화) ~ 6. 21(금)

서울 웨라톤 그랜드 워커히 호텔

주최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후원 |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재외동포재단

720만 재외동포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www.korean.net